

겨레의 말을 이으면서 나아가는 통일의 걸음 - 조재수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상임이사를 만나다



답변자: 조재수(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상임이사)

질문자: 권창섭(아주대학교 강사)

때: 2014. 10. 28.

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회의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세상에서 언어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분단된 지 60여 년, 남과 북의 언어는 얼마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왔을까? 단혔던 남과 북의 말길을 잇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바로 이 지점의 고민에서 출발한 남과 북의 협력 사업이다.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을 넘어 우리 겨레말의 어휘를 모아 그동안 남북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통일 시대를 지향하는 사전, 남과 북이 함께 엮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 될 것이다.

남북 관계의 악화로 한동안 물꼬가 막혀 있던 이 사업의 흐름이 올해 여름 4년 7개월 만에 남북이 다시 만남으로써 트이게 되었다. 2019년에 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조재수 상임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남북 관계의 악화로 중단되었던 《겨레말큰사전》 편찬 회의가 올해 여름 중국 선양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새국어생활》에서는 현재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대담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가 처음 구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겨레말큰사전》 소개와 편찬 계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조재수 분단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하여 2005년 2월 20일 금강산에서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일은 1989년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석을 만나 ‘통일국어대사전’을 남북 공동으로 편찬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김 주석이 동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사정으로 그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04년 1월 문익환 목사 10주기 추모 행사에 북에서 대표단이 왔을 때, 박용길 장로(문익환 목사의 부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그동안 지나쳐 온 ‘통일국어대사전’의 편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북측에서 사업 승인이 나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04년 4월 중국 연길에서 남측의 ‘사단법인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통일 토론회를 가지면서 사전 편찬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이때 사전 이름을 《겨레말큰사전》이라 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측의 실무자로 소설가 정도상 씨가 참석했습니다.

2004년 12월 11에는 남측 편찬사업회가 구성됩니다. 남북 공동편찬

[사진 1] 거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2005년 2월)



사업회 상임위원장에 고은 시인, 남측 공동위원장에 홍윤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편찬위원으로 9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북측 공동위원장은 문영호 조선언어학회 위원장이, 그리고 남측과 마찬가지로 편찬위원 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남측 위원 11명과 북측 위원 10명으로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회'가 발족된 것입니다.

남과 북의 편찬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남측은 주로 여러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이었는데 그 중 교수 요원이 아닌 사람으로 본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사전 편찬 전통을 생각하여 한글학회 출신으로 한 사람을 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글학회의 《큰사전》 보유·편찬에 20여 년 종사하여 1992년 《우리말 큰사전》을 마무리한 일이 있습니다.

북측 편찬위원들은 대부분 사회과학원 소속인 전문 연구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편찬위원 명단에는 사회과학원 소속이 아닌 조선언어학회 회장 및 회원 등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찬사업회를 남측의 '사단법인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주도하여 발족함으로써 양측의 국립 연구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의 주도라는 점에서 그 신분을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섭 네. 그렇군요.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회’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남측과 북측의 편찬사업회가 구성된 뒤, 본격적으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을 텐데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과정과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조재수 2005년 7월에 남북 편찬위원들은 평양에서 ‘공동편찬요강’을 합의하여 발표했고, 8월 15일에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이 편찬 사업을 우리 겨레에게 널리 알리는 보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해 10월 11일에는 남측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2006년 1월, 사단법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출범하고, 2007년 4월에 특수법인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회의 사무처와 사전 편찬실을 꾸려 직원 약 30명을 선발하였지요. 북측은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에서 그만한 인원을 동원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올림말 30만 개를 선정하여 사전 원고 집필을 끝내기로 하고, 해마다 분기별로 네 차례 남북 공동 편찬 회의를 금강산, 개성, 베이징, 선양, 평양 등지에서 가졌습니다.

권창섭 본격적인 집필에 앞서 올림말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표기 방법 등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조재수 네. 우선 기초 작업으로 사전 집필 요강 작성, 남북 사전들에 대한 비교 검토, 올림말 선정, 기존 사전에서 거두지 못한 겨레말 어휘 자료 모으기 등을 단행했습니다.

남북 단일 어문 규범에 대한 논의로는 ‘자모 배열 순서와 이름,¹⁾ ‘띄어쓰기’, ‘문장부호’, ‘외래어 적기’에 관해 합의를 보았습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옷과 한자어의 ‘ㄴ, ㄹ 첫소리 적기(두음법칙)’에 관한 문제와 집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그렇군요. 이후 실제 집필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요?

조재수 이상의 사전 편찬상 기본 문제를 합의하고, 2008년에는 3차에 걸쳐 750여 개의 올림말을 남과 북 편찬위원들이 시범적으로 집필하여 상대방의 원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본 집필로 들어가 남측에서 ‘ㄱ, ㄴ, ㅇ, ㅈ, ㅊ’ 올림말과 언어학 용어, 문법 형태소 등을 집필하고, 북측에서 ‘ㄴ, ㄷ, ㄹ, ㅂ, ㅅ, ㅎ, ㅍ~ㅍ’ 올림말과 흥내말(의성의태어)에 대한 집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차 선양 회의 때 북측에서 흥내말(의성의태어)에 대한 집필을 남측으로 넘겼습니다.

남북 집필회의는 7개 조를 편성하여 분기마다 약 1주일씩 만나 서로 교환한 집필 원고를 함께 검토하고 정리해 옵니다. 7개 조 가운데 1개 조는 새 어휘 집필조입니다.

1) 남북의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는 차이가 있다. 자음의 경우, 남측은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의 차례인 반면 북측은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ㅍ, ㅎ’의 차례이다. 즉 ‘ㅇ’과 된소리의 배열에서 차이를 보인다. 《겨레말큰사전》의 자음 배열 순서는 남측의 방식과 북측의 방식의 절충안이다. ‘ㅇ’의 차례는 남측의 방식을 따르되 된소리의 차례는 북측의 방식을 따른다. 또한 자음의 이름 역시 남북의 차이가 있는데 ‘ㄱ, ㄷ, ㅅ’에 대해 남측의 경우는 그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역, 디근, 시읏’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북측에서는 다른 자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옥, 디은, 시읏’으로 지칭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이 셋의 명칭에 대해 북측의 방식대로 ‘기옥, 디은, 시읏’으로 하고 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노트북을 비롯한 장비와 참고 자료를 싣고 가서 일주일 이상을, 1년이면 한 달을 남북 편찬위원들이 함께 일을 하다 돌아오는 셈이지요.

사전 편찬은 큰 건물을 짓는 일과도 같습니다. 면밀한 설계에 따라 한 현장에서 자재와 품을 들여 건물을 짓듯이, 사전 편찬도 일정한 원칙과 요강에 따라 한자리에서 한결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아직 공동의 일터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권창섭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을 텐데요.

조재수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 교류가 닫히면서 남북 편찬 회의도 2009년 12월 20차 회의와 네 차례의 집필회의를 가진 뒤로 멈춰야만 했습니다. 2013년까지 사전 원고 집필을 끝내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도 남측 편찬실은 원고 집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가 2014년 4월까지였던 이 사업회의 존속 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도록 결의해 주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7월 말에는 닫혔던 남북 공동 편찬회의(21차)를 중국 선양에서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4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다시, 남과 북의 모든 분야의 교류가 원만해지기를 바라며, 그중에도 문화와 학술 교류만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권창섭 오는 10월 30일부터 평양에서 제22차 공동 편찬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조재수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주요 내용의 한 가지는 전체 올림말을 재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사진 2] 제22차 공동 편찬 회의 모습(2014년 11월)²⁾



기존 어휘 20만, 새 어휘 10만으로 30만 어휘를 목표로 하였으나 편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휘가 붙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재조정 한 7만여 개의 올림말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올림말의 수를 늘리면 집필에 드는 품과 기간이 늘어나게 마련이니, 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을 추가하되, 토박이말은 늘리고 많은 한자어와 전문 용어 등에서 줄여도 좋을 대상을 가려보는 것이 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집필 회의의 주요 일거리는 각 측에서 집필한 원고 8,000개의 교환과 지난 회의에서 교환한 각 측의 집필 원고 8,000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새 어휘조는 별도로 집필 원고를 교환하고 각 측이 검토해 온 원고를 논의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2) 이 대담은 제22차 공동편찬회의가 있기 전에 진행되었으나, 추후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사진을 제공해 준 것이다.

권창섭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의의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편찬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도 궁금합니다.

조재수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2005. 7. 10. 평양)에서 밝힌 이 사전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겨레말을 조사, 발굴하여 새롭게 엮는 통일 지향적인 30만 어휘의 현대 국어사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릴 말의 자료 곧 전체 표제어는 “20세기부터 써 온 현대 국어 어휘로, 남북의 기존 사전에 실린 일반어와 전문 용어, 그리고 새로 조사해 발굴한 지역어·민속 어휘·산업 현장 어휘·문예 작품 어휘 등에서 선별한 어휘라 할 수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분단 60여 년의 두 지역 언어를 챙기는 일이며, 또 두 지역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통일 시대의 새 언어 질서를 위한 제2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반과, 서울 중심의 표준어와 평양 중심의 문화어를 넘어 통일 시대의 우리 언어 공간에 알맞은 폭넓은 공통어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닦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어를 중국, 중앙아시아 등지의 국외 동포 사회의 모국어 어휘까지 포함시켜 우리 언어 공간을 나라 안에서 국외로 넓혔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국어사전 100년을 잇는 새로운 편찬으로 가장 많은 새 어휘를 발굴하고 인용례를 담은 사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지난 100년의 우리 근현대 문예 작품을 섭렵하여 3억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고, 20여 만의 새 어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을 통해 남과 북에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기르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사전 편찬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한 전문 분야이지요. 사전 편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사람의 전문화’와 ‘편찬 업무의 전문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사전 편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존 사전의 내용을 깊고 더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고, 모자라는 내용은 더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전에서는 그 수량이 많다 하여 ‘-하다/-되다/-스럽다’, ‘-이/-히/-스레’ 등과 피동사·사동사 파생어들을 기본 표제어로 올리지 않거나 옹근 뜻풀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전에는 이를 해당 뜻풀이와 용례를 자세히 주기로 하였습니다.

권창섭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여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조재수 상임이사님과 대담을 마치겠습니다.³⁾

3)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사업회의 누리판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http://www.gyoremal.or.kr>

눅다² [눅따] [눅어, 눅으니, 눅네[눔네]] ㉸

=싸다³①. ㉷ 값이 **눅다** / **눅게** 사다 | 소금은 국가의 전매품인데 조선에서 들어오는 소금은 한 말에 소불하 20전이나 **눅으니** 자연히 밀수가 있게 마련이다. <김창걸: 어머니의 반생>/ 열 명 중 일곱 여덟 명은 으레 값 **눅고** 잘 고쳐 주는 국영이나 양화 수리 협동조합으로만 갔다. <김승관: 그가 갈 길>/ 재식이 처는 마른 조갯살이며 파래 김, 복쟁이 포따위를 **눅은** 값에 수월하게 받았더라고 했다. <이문구: 해벽> 반대 비싸다.

🔍 <물건의 값이 일정한 기준보다 낮다>를 뜻하는 말로서 흔히 북에서는 <눅다²>를, 남에서는 <싸다³①>를 쓴다.

소행¹ (所行) [소: 행] ㉸

이미 벌어지거나 저질러진 행위. | 그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가장의 승낙도 없이 움직이려는 아내의 **소행**에 우선 화부터 치밀었다. <이동화: 강남땅>/ 그들은 그 아름다운 **소행마저도** 감쪽같이 감추고 있지 않았던가! <김재규: 날개>/ 봉국이는 … 어련무던한 형을 꼬드겨 술판으로 끌고 다니는 달수의 **소행도** 은근히 괘씸하였다. <김호웅: 어머니의 소원> 같은말 소위⁵(所爲)②.

🔍 남에서는 <소행>을 대체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지만 북에서는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쓴다.

일없다 [이: 럽따] [일없어[이: 럽써], 일없으니[이: 럽쓰니], 일없는[이: 럽느] ㉸

①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 월급도 **일없고** 다만 일만 가르쳐 주면 그만이니 어린이 하 나를 써달라고 졸라대었다.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일없다**. 가거라! <최서해: 큰물 진 뒤>

② =괜찮다②. | 칼로 에이는 듯한 동통은 다리로 뻗었지만 좀 지나면 **일없으려니** 여겨 됐는데… <천화: 딸의 뜨거운 마음>/ 아버지, 정말 제가 없어도 **일없겠어요?** <방하일: 교수의 시간표>/ 약 한 첩이면 **일없을** 아이가 연이틀이나 설사를 하고 탈진 상태에 떨어진 것이었다. <이문열: 영웅시대> [일+없+-다]

🔍 상대의 염려에 답하거나 상대의 호의를 거절하는 등 대체로 남에서 <괜찮다>를 쓸 상황에서 북이나 중국에서는 <일없다>를 쓴다.

※ 이 원고는 《겨레말큰사전》 집필 원고의 사례로 최종 원고가 아니며, 남북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